



NO. 2171

하늘 마음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리스도의 세례>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이사 42,1-4.6-7

화답송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늘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집념의 야곱



등촌1동성당 부주임

윤웅렬 하상바로 신부

CYA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 기쁘게 시작했나요? 올해에는 매월 둘째 주마다 저와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는 여행을 떠나 볼 거예요. 이른바 '성경마블 인물여행!' 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야곱'을 만나러 가볼까요?



출처 : wikipedia

오늘의 주인공 **야곱**의 이름에는 '**발뒤꿈치**'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사우가 있었는데,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였어요. 동생인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에 바로 그 뜻이 담긴 것입니다. 다들 '뒤통수를 치다'는 표현 들어봤지요? 이와 비슷하게,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발뒤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배신하는 몸통작을 표현해요.

'발뒤꿈치'라는 그 이름처럼 야곱은 **형을 속여먹는 행동**을 하고 말아요. 당시에는 맏아들이 가진 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이어받아 가문을 이끄는 아주 귀한 권리였어요. 야곱은 형이 매우 배고픈 때를 노려, **맏아들인 형의 권리와 자신이 꿀인 불콩죽을 맞바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사악의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을 때, 털이 많은 형처럼 위장해서 맏아들에게 주어져야 했을 축복을 가로채고 말아요.



헨드릭 테르브루그헨 <장자권을 파는 에사우>
티센보르미네사 미술관, 네덜란드

형 에사우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야곱은 자신에게 양심을 품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북쪽 지방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야곱은 외삼촌 아래에서 이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이 형을 속여 먹었듯이, 야곱도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으며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도 얻고 또 재산도 많이 일구었어요.





천사와 싸움하는 야곱
출처 : 굿뉴스

이윽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야곱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형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이 장정 사백 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야곱은 형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선물과 함께 가족들을 자신에 앞서 인사시키려고 형 에사우에게 보냈어요.

혼자 남아 있던 야곱은 '야벱'이란 이름의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느님의 천사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는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 32,27)

축복을 향한 집념으로 야곱은 천사에게 끝까지 매달렸어요. 천사는 야곱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 주면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까지 지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발뒤꿈치'라는 뜻이 아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신다'는 뜻의 새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축복을 가로채던 사람에서, 집념으로 주님의 축복을 청했던 야곱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게 되었고, 그 축복 속에서 형 에사우와도 진심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우리 CYA 친구들! 오직 나만을 생각하던 한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름도 생각도 변화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느님은 야곱의 인간적인 집념까지도 좋게 보아 주시면서, 그의 집념이 축복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CYA 친구들 모두도, 야곱처럼 축복을 향한 집념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멋진 청소년들로 변화해 가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하늘마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채널 추가하고 카톡으로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메인 - 우측 상단 돋보기로 검색 - '하늘마음'검색 - 친구추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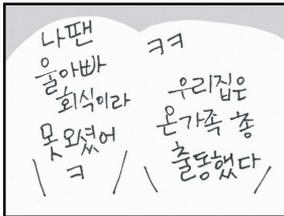


◀ 왼쪽 QR코드 스캔하고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하세요!



날은 CYA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태어난 길에 성당일주

무명 순교자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모 순례지

남양성모성지 [수원교구]



미디어부 부서원

교사 문혜지 아셀라

안녕하세요, CYA 친구들? 새해는 잘 보내고 있나요~? 새해 첫 여행지로 오늘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성모성지'를 소개하고자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픈 역사도 함께 지닌 오늘의 태당일주, 함께 떠나볼까요?

친구들, 역사를 배울 때 병인박해(1866)에 대해 배운 적 있죠? 오늘 소개할 남양성모성지는 **병인박해 때 많은 순교자가 피 흘리며 죽어간 무명 순교지**입니다. 지리적으로 남양은 서해안의 군사적 요충지로 박해에 유리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신자가 순교하였는데요. 다른 순교지와는 달리 무명 순교자들의 치명터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던 중 박지환(요한) 신부님이 이곳을 발견하고,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역화(聖域化)**¹⁾합니다. 1991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에 봉헌된 이후 한국 천주교회 사상 처음으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성모 순례지로 선포되었답니다.



▲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

성지에는 정말 멋진 건축물이 가득한데요. 화성 8경으로 소개되어 신자가 아닌 일반 방문객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아름다운 명소랍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이 바로 2022년 완공된 남양 성모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강남 교보타워, 리움 미술관을 건축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성당인데요. 60만 장의 붉은 벽돌이 너무나 아름답게 쌓여 있는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각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이 들었어요.

¹⁾ 성역화(聖域化) : 신성한 지역이 됨. 또는 신성한 지역으로 만들.





▲ 대성전 내부



▲ 평화의 모후 왕관의 열두 개의 별 경당

대성당 내부는 미사 시간에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미사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11시마다 있습니다. 가본다면 꼭 미사 시간을 맞춰 가길 바라요. 성당 옆에 있는 **‘평화의 모후 왕관의 열두 개의 별 경당’**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커다란 창 뒤로 자리 잡은 십자가상과 성모님이 들고 계신 성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당을 나오면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목주 알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남양성모성지에 사도적 축복을 내리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성모님을 사랑하며 평화를 위한 목주기도를 지속적으로 바치길 바랍니다.’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이곳엔 무명 순교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어요. 가끔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 친구들도 남양성모성지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평화를 위한 기도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 모이세 이모네 칼국수와 돈가스

넓은 성지를 둘러보니 배가 고프죠? 성지를 나와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나오는 **‘모이세 이모네 칼국수’**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지만, 돈가스도 너무나 맛있어요. 가족과 함께 간다면 꼭 바지락 칼국수와 돈가스를 시켜서 나눠 먹어보길 추천합니다.

아픔의 역사가 서려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남양성모성지, 우리 친구들도 꼭 방문해 보길 바라며 오늘의 태당일주를 마칠게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복음자리

2025년 1월 12일 | 주님 세례 축일
(루카 3,15-16.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 3,21)

새겨보기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자신은 그분 앞에 부족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셨다는 점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일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